

서울시 보육시설 중 20여개 어린이집이 위탁계약이 끝났거나 새로운 위탁자를 찾고있어 불교계의 발빠른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성동구 송정어린이집, 서초구 반포어린이집 서초어린이집을 위탁 공고한데 이어 종로구 창신어린이집, 강북구 미아어린이집, 동작구 흑석 성대골 신대방어린이집 등을 8월말부터 10월말까지 위탁공고하거나 신청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마포구 합정어린이집 용강어린이집과 구로구 신도림어린이집 개봉어린이집 공사를 착공계획중이거나 공사중에 있다.

이에따라 불교계가 적극적인

공회하기 위해 보육시설 설치 시 무상으로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종사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시설위탁운영 활용방안이 과제로 지적된다.

이와관련 가정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불교계는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과 아동의 정보교류와 보육시설유치에 대해 소극적인 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국·공립보육시설위탁은 본인부담을 최소화하여 큰 규모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과 로비가 치열할 것으로 보여 시설건립단계에서부터 관찰관청의 주무부서 담당자와 접촉하여 해당관청의 의도와 지원, 조건을 사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의는 관찰구청 가정복지과, 도필선 기자

서울시 보육시설 20여곳 새 위탁단체 모집

# 교계 유아포교 '절호기회'

종교단체 참여시 시설등 지원  
관할구청 가정복지과에 신청

총, 42만7천여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적극 추진중에 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교단체의 보육사업 참여를 이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지원에 대한 불교계의 참여와 관심이 촉구됨과 동시에 영유아포교에 취약한 중·단 및 사각, 불교단체의 보육

출전결의법회에서 선수들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했던 남자자유도의 전기영(78kg)선수수와 여자자유도에서 동메달을 따낸 정성숙(61kg)선수도 전기영, 조민선선수와 함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태릉선수촌 한마음불자회 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우여곡절 법우들이어서 이들의 메달 획득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리 힘과 기술이 승패를 좌우한다

동국대, 교육개혁박람회 참가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20일부터 8월2일까지 열린 교육개혁박람회에 참가했다. '동국100년-비전2006년'을 주제로 참가중인 동국대는 학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20일부터 8월2일까지 열린 교육개혁박람회에 참가했다. '동국100년-비전2006년'을 주제로 참가중인 동국대는 학

### 중단소식

#### 대전태종 대표단 방한

일본태종 대표단(단장 이마데가와 고온 일본태종 교무부장)은 지난 15일 구인사에서 태종 총무원장 윤덕수님을 예방하고 오는 10월1일 일본 태종 총본산 연지사에서 개최되는 태종대사 1400주년 추모 합동법요식에 30명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일 태종의 우호를 넓혀가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함께 일본 태종 대표단은 인종교류와 문화교류에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자 말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결속하자'는 일본 태종 총무원장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일본 태종 대표단은 단장에 이마데가와 고온스님(일본 태종 교무부장)을 비롯하여 최준(일본 경도대학 원이사장) 후다가와 분고(일본 사회단체 마들의 광장 국장) 등이 내한했다.

#### 진각청소년수련회

진각종(총무원장 탁예)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3백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호성청소년수련회에서 진각청소년수련회를 개최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통한 자아발견과 신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설악산 대청봉과 그 일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캠페인을 전개하여 청정국토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천했다.

#### 동방대 '법문집' 발간

태고종 동방불교대학 불교학과는 학생들의 법문을 모은 '법문집'(2백쪽 분량)을 발간했다. 이 법문집에는 가정극락을 위한 '불교의 올바른 저승관과

#### 방송가 소식

'황룡사' 등 비디오로

KBS가 10대 문화유산 시리즈로 제작한 '황룡사' '무녕왕릉' 등 일련의 TV방영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출시했다.

'황룡사'는 조선만 남아있는 경주의 비너에 황룡사를 복원, 역사적속의 무형문화재를 현재 살아 숨쉬는 실존문화재로 편입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던 다큐드라마. '무녕왕릉'은 지난 71년 공주의 송산리에 분포한 고분들에 대한 배수로 작업 중 발견된 무녕왕릉을 다룬 작품

#### 불교TV 중계차 전복

불교TV 중계차가 지난 19일 오후 3시경 '돌앞의 잔디밭' 촬영차 대구로 향하던중 진천부근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손

####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이런저런 불자 여러분의 일대일, 수면의 정령이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 1호를 발간하였습니다.

●합본집 1호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59호(95.12.27)  
●가격 5000원 (방송비 별도)  
●구입신청 현대불교신문사 정경리국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올림픽 불자선수 잇단 '금메달 합장'

통상 1백번째 메달이자 개인적으로도 1백번째의 메달을 획득, 은 국민과 2천만 불자들을 열광하게 만든 이는 선수촌에서도 신심깊기로 소문난 심권호(레슬링 48kg)선수. 93년부터 국내외 대회를 통틀어 한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심권호는 이번대회 경기내내 심권의 관성이나 관중의 환호에 합장하는 모습으로 당당히 불자선수의 의젓한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관련기사 16면>

"오직 금메달을 향한 한가지 일념으로 지친 육신을 일으켜 세워가며 훈련에 임한 선수들이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심으로 모두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며 지난 태릉선수촌



심권호

#### 심권호·전기영·조민선·김민수·정성숙 등 태릉선수촌 한마음불자회 법우들 '승리잔치'

유도 정성의 자리를 지켜냈다.

또한 항상 염주를 손목에 차고 다니며 뜰하는 대로 한마음 법당을 찾곤 했던 여자 유도의 대들보 조민선(66kg)선수도 시원시원한 한판승으로 세계의 강호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세계 정상에 우뚝섰다. 전선수와 조민선은 '95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도 나란히 우승을 차지한 바 있어 이번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쾌거 또한 뜻깊은 인연의 결과라는 후문.

#### 방송모니터 꼭 필요

평에서 한단계 나아가 청취자 시청자를 대표하는 모니터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제안도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모니터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송사의 투자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출전결의법회에서 선수들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했던 남자자유도의 전기영(78kg)선수수와 여자자유도에서 동메달을 따낸 정성숙(61kg)선수도 전기영, 조민선선수와 함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태릉선수촌 한마음불자회 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우여곡절 법우들이어서 이들의 메달 획득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리 힘과 기술이 승패를 좌우한다

#### 전통사찰 제 74호 영장산 망경암 대웅전 복원불사 및 백일기도 권선문

서울 남산이 훤히 마주 보이는 마애불 (경기도 지정 유형 문화재 제102호) 부처님께 고려조 임금님들이 기도 드리던 유서 깊은 도심속의 전통사찰 망경암(望京菴)

이곳 대웅전이 불기2540.4.7. 밤 0시경 방화로 보이는 화재로 소실되어 이로 인한 아픔을 딛고 빠른 시일내 복원하고자 합니다. "한 부처님이 출현하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만 중생이 안식처를 얻는다"합니다. 소실된 대웅전 복원 불사 원만성취 기도와 더불어 1997학년도 대학수능시험 백일기도를 하오니 좋은 인연이 될 대웅전 복원불사와 대학수능시험 기도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와 동참을 권합니다.

●기도시작 : 1996년 8월 6일(음력 6월 22일) 오전 10시  
●기도마침 : 1996년 11월13일(음력 10월 3일) 오전 10시

금격한 방송환경의 변화, 본격적인 다채널 시대를 맞아 어느때 보다 비판적이고 깨어 있는 시청자 감시기가 필요한 때가 왔다.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에 견주어 볼때 그 방송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동적인 모니터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불교방송과 불교TV는 그동안 다른 방송사에 비해 방송사 불교방송도 개국이후부터 모니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생성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이런저런 불자 여러분의 일대일, 수면의 정령이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 1호를 발간하였습니다.

●합본집 1호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59호(95.12.27)  
●가격 5000원 (방송비 별도)  
●구입신청 현대불교신문사 정경리국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계 방송의 대내외적인 위상이 다소 흐트러진 것도 사실이다. 불교TV가 지난달 중순부터 불교TV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한 9명의 모니터요원을 구성했다. 더이상 방

송을 만들어 내 보내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방송을 내보낸 후의 반응과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영을 보인다. 불교방송도 개국이후부터 모니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 양성과 운영을 통해 생긴 노하우를 그대로 방송제작에 연결짓게 될 때 보다 발전적인 방송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지기는 힘들겠지만 방송국의 자체의기구 점검과 함께 PC통신, 음성버저 도입등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취자와 시청자들도 스스로 방송을 감시, 비판하는 적극적인 동참자가 될 때 방송의 발전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른 자 (취재2부 기자)

급하지 않고 방송을 내보낸 후의 반응과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영을 보인다. 불교방송도 개국이후부터 모니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전통사찰 제 74호 영장산 망경암 대웅전 복원불사 및 백일기도 권선문**

서울 남산이 훤히 마주 보이는 마애불 (경기도 지정 유형 문화재 제102호) 부처님께 고려조 임금님들이 기도 드리던 유서 깊은 도심속의 전통사찰 망경암(望京菴)

이곳 대웅전이 불기2540.4.7. 밤 0시경 방화로 보이는 화재로 소실되어 이로 인한 아픔을 딛고 빠른 시일내 복원하고자 합니다. "한 부처님이 출현하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만 중생이 안식처를 얻는다"합니다. 소실된 대웅전 복원 불사 원만성취 기도와 더불어 1997학년도 대학수능시험 백일기도를 하오니 좋은 인연이 될 대웅전 복원불사와 대학수능시험 기도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와 동참을 권합니다.

●기도시작 : 1996년 8월 6일(음력 6월 22일) 오전 10시  
●기도마침 : 1996년 11월13일(음력 10월 3일) 오전 10시

소실전

소실후

●대웅전 불사 권선내용 : 기동, 주춧돌, 대들보, 석가래, 기와, 용두, 문짝

●일반시주는 1구좌에 30만원 (5만원 X 6개월 분납됨) 시주자 현판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온라인 : 국민은행 213-01-0349-715, 우체국 102335-0194943-11 (예금주 : 망경암)

●대웅전 불사에 동참 하시면 편리하게 시주 하실수 있는 은행 지로용지를 보내 드립니다 (은행지로번호 : 7627758, 시중은행에도 지로용지가 있습니다.)

망경암 약도

문의전화 : (0342)753-3090(사무실)  
(팩스)753-3091(주지실)  
753-3092(법사실)